

알프스 만년설을 배경으로

조용히 굽이치며 떠오르는 예술의 열기

아틀리에 론도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사진 김제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
과와 동대학원 석사 학위를 마
치고, 현재는 신화예술고등학
교 등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시각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전 3회, 국내외 단체전에
20여 회 참가하였다.

Atelier Rondo Artist-in-Residence Program



제작년 7월의 어느 날,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메일을 열어 보았다. 이미, 수차례 낙방 통지를 받아 보았던 터라 애써 기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지만, 이번 것은 형식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본 프로그램에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수만 명의 지원자가 몰린 탓에 심사가 쉽지 않았다...”는 등 익숙한 변명들 대신 “첨부문서 확인 바람”이라는 간략한 문구와 함께 PDF 파일이 달랑 하나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여는 순간, 온 몸 에 느껴지는 전율! 이렇게 해서 나는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소재한 <아틀리에 론도>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당시 국내에 <아틀리에 론도>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국내에서 비교적 지명도가 있는 일부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이름도 생소했고, 일반적으로 음악으로 더 유명한 오스트리아에서 운영한다는 점도 새로웠다. 필자가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사진 속의 건물이 매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 해외 작가와 오스트리아 작가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고맙게도 매달 약 850유로의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점이 고작이었다. 선정 통보 이후 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항공편으로 비엔나를 경유하여 그라츠(Graz)에 도착했다. 그라츠는 중세의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잘 어우러진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엔나 다음으로 큰 제 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인구가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이다. 시가지를 가로질러 무어(Mur) 강이 유유히 흐르고, 대체로 평지인 도시 중심에 뜬금없이 불룩 솟아있는 슐로스베르크 산 정상에 오르면 멀리 알프스 자락의 만년설도 보인다. 한편, 그라츠는 슈타이어마르크(Styria) 주의 행정중심이자, 대학 6개가 모여있는 교육 도시이기도 하다.



중앙 기차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는 <아틀리에 론도>는 마르쿠스 페른탈러(Markus Pernthaler)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실험적인 형태의 건물 안에 있는데, 4층과 5층을 작가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는 아파트와 사무실이 입주해 있으며, 건물 중앙부에는 생태학적으로 조성된 공원도 있다.

이미 와 있던 한 작가의 안내를 받아 석 달 동안 지넬 작업/거주 공간에 들어섰다. 15~20평 즈음 되는 공간에 생각보다 널찍한 텅 빈 작업공간, 커튼으로 구획된 침대가 있는 공간, 냉장고, 핫플레이트, 냄비, 식기 등 웬만한 조리기구는 모두 구비된 주방, 그리고 욕실 겸 화장실도 갖추어져 있었다. 벽장 안



에는 깨끗하게 빨아놓은 침대 시트와 베개 커버도 마련되어 있어서 당장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론도〉에는 필자가 사용한 것과 같은 해외작가 스튜디오가 4개, 그리고 그보다 좀 작고 욕실과 취사시설이 따로 없는 오스트리아 국내작가 스튜디오가 8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입주 기간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12개 팀의 작가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것이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오스트리아는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스페인, 독일, 영국, 이란 등 여러 나라 작가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삶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 일들이 매우 값진 경험으로 남아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유럽 작가들의 미술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여지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작가들의 성향은 설치와 퍼포먼스, 조각, 개념미술, 그리고 평면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장소가 오스트리아이니만큼, 음악 또는 음향을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꽤 많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봉착한 하나의 난제는 필자의 작업을 소개하는 일이었다. 필자는 그 동안 식물을 소재로 의인화 혹은 비유를 통해 우리 사회상을 풍자하는 작업을 해 왔는데, 문인화나 사군자의 형식을 차용하여 패러디로 표현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군자’ 등의 동양적인 개념을 접해보지 않은 유럽인들에게 작품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정성스럽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 그들도 결국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듯 했다. 물론, 각자 사고의 틀 내에서 이해했을 터이지만…… 바로 이런 상이한 문화의 만남과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론도〉 프로그램은 꽤 자유로운 편이었다.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그런지 코디네이터 등은 미술 전문가라기보다는 문화행정 관료의 느낌이 더 강했다. 그래서 공간과 시설, 생활비, 작가가 전시를 기획할 경우 소정의 재료비 등 물적 지원만 해 주고, 그 밖에 모든 것은 작가의 자유에 맡긴 채 일체의 간섭이 없다. 이런 점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하에 적극적으로 작가들의 활동과 공동체 참여 등을 유도하는 성격의 레지던스를 생각했다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무엇이든지 작가가 먼저 나서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야말로 작가들이 가장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최대한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결국 가장 엄격한 가이드 라인은 작가가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일 테니 말이다.



〈론도〉에서 지낸 3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라츠는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갤러리, 대안공간 등이 많은 편이라 볼 만한 전시가 수시로 열리며, 철 따라 미술축제, 예술제, 국제 영화제 등도 개최하기 때문에 감상자의 입장에서든 바쁜 나날을 보냈다. 또, 동료 작가들과 함께 수시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동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레지던스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모든 참여작가와 함께 단체전을 열기도 했다. 한편, 중부 유럽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시간을 내서 비엔나, 독일, 부다페스트 등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필자가 만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어딘지 시골사람처럼 과묵하고 다소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오스트리아에는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미술 작가와 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물론, 그 작품의 질은 매우 유지한 것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것까지 천차만별이지만, 그러한 다양한 예술활동의 공존, 감상자들의 열린 태도,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의 문화적 자부심의 기반이 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얼마 전 귀국한 필자는 유럽과는 사뭇 다른 한국의 현실을 새삼스럽게 체감하면서, 오스트리아에 못지않게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한국이라는 나라도 문화와 예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정책을 펼칠 그 날을 기대해 본다.

